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즉시 (지면) 2026. 3. 30.(월) 조간 배포 2026. 3. 29.(일)

3월 31일 14시부터 부산역 배후 충장지하차도 우선 개통

-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주변 출퇴근길 교통 흐름 개선 기대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3월 31일(화) 14시부터 부산북항 재개발지역 충장지하차도를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2019. 10.~2026. 5. / 2,710억 원 / 지하차도 1.86km(4차로), 상부도로 1.94km(6~10차로)

이 사업은 북항 재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사업으로서, 부산역 배후의 혼잡한 도로 교통상황을 완화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추진되었다.

그러나, 불규칙한 지반 등 예기치 못한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하차도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지난 3월 26일 관계기관(해수부,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차도의 안전성과 시공 완성도를 최종 확인하고 우선 개통을 결정하였다. 특히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내 안전손잡이, 자동 터널 진입 차단시설 등을 적용하였고, 화재 시에도 열감지 센서를 통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다.

충장지하차도가 개통되면 현재 왕복 6차로인 충장대로 구간에 지하차도 왕복 4차로가 추가되어, 충장고가교쪽에서 부산세관을 오가는 차량은 교차로 신호없이 지하로 바로 통과하여 이 구간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충장지하차도 우선 개통은 교통 흐름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으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우선 개통 및 시설물 이관 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국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책임자	단 장	이상호 (051-604-3100)
		담당자	사무관	박홍범 (051-604-3120)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책임자	과 장	장기문 (051-609-6770)
		담당자	사무관	신선규 (051-609-6771)
	부산광역시 도로안전과	책임자	과 장	진홍근 (051-888-2750)
		담당자	사무관	정연이 (051-888-27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교통 지·정체가 예상되는 중장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사업지로의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통해 성공적인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도모
- ㅇ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동구 초량동
- ㅇ **(사업기간/사업비)** '19.10. ~ '26.05. / 2,710억원(공사비 : 2,581억원)
- ㅇ **(사업내용)** 도로 1.94km(6~10차로), 지하차도 구간 1.86km(4차로) 포함
- ㅇ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 쌍용건설㈜ 외 7개사 /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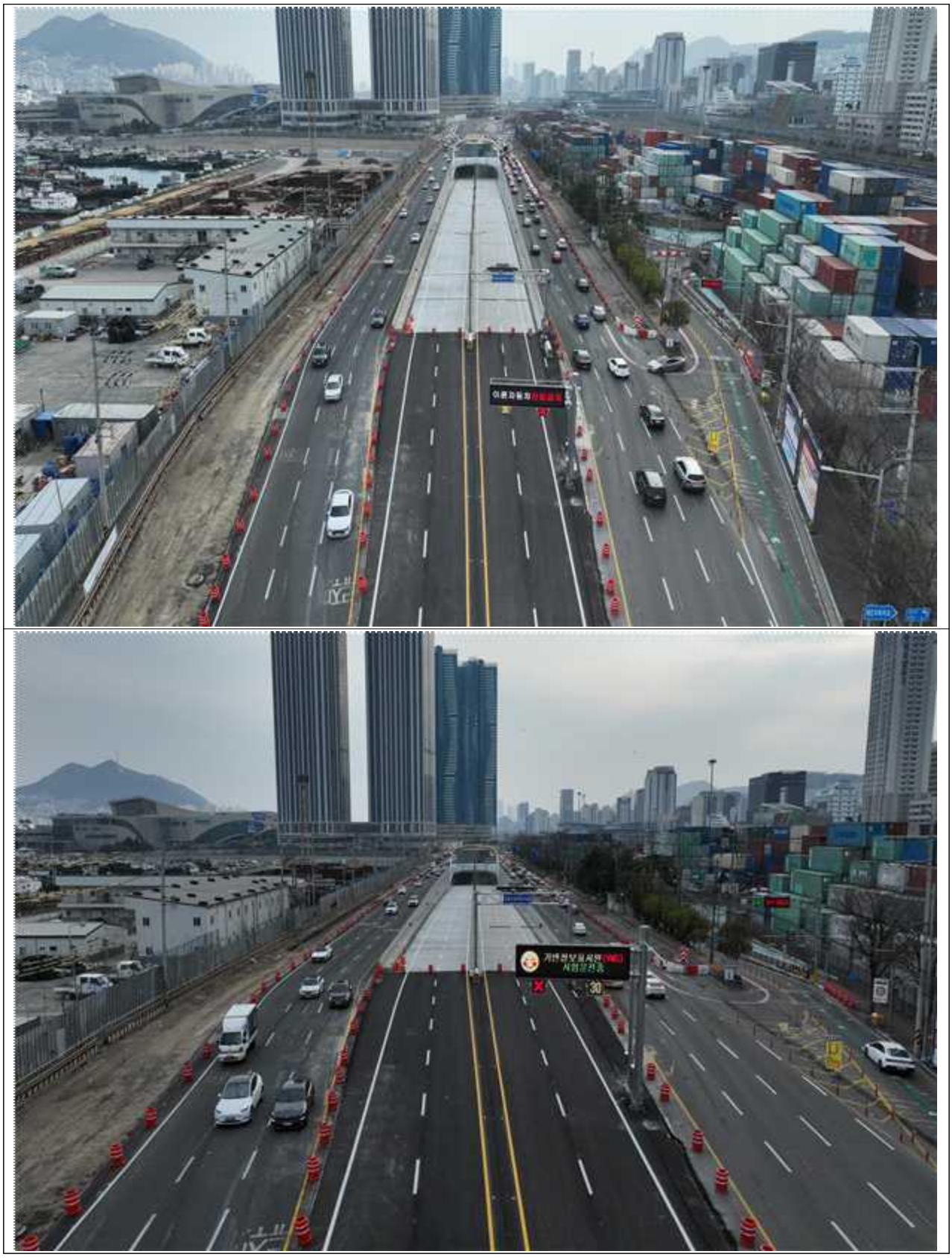
- ㅇ '07.08 :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ㅇ '12.03 ~ '15.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ㅇ '17.01 : 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 2,249억원, B/C=1.10)
- ㅇ '19.10 ~ '26.05 : 공사시행

□ 계획평면도

참고2 **충장지하차도 사진**

〈 시 점(부산세관 접속부) 〉

〈 종 점(충장고가교 접속부) 〉



〈 지 하 차 도 내 부 〉